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박혜숙 · 최경희 ·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박혜숙 · 최경희 · 박희병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의 텍스트들을 통해 여성적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 및 자기서사의 양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연구 중 그 두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에 이어 전통시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전통시대 여성자기서사의 특징적 측면들 중에서도 주로 여성의 자기서사의 주요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의 양상, 자기서사와 지배가치의 관련양상,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험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는 신분의 차이나 인생의 성패 여부에 관계 없이 철저히 유교적 윤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전통시대 여성에게는 딸, 아내(및 며느리), 어머니 외의 자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는 철저히 가족 내적 존재였다. 인생의 각 시기에 따라 딸, 아내, 어머니의 역할만이 인정되었기에 조선여성에게는 젠더정체성이 개별정체성보다 우선적이고 규정적이었다. 조선의 남성은 자신을 한 사람의 독특한 인간으로 이해하거나 인간일반의 특수한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여성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보다는 우선 '여성'으로서 이해하였다. 여성에게 개별적 특성이나 인간적 특성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 사람의 여성은 단지 여성집단의 일원이자, 여성일반의 대표나 범례로서 존재할 따름이었다. 조선사회에서 한 여

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규범적 여성상에 부합하는가 여부였을 뿐, 여타의 다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의 여성이 삼종지도에 의해 규율되는 타자적 존재이며, 그들에게는 젠더정체성이 개별정체성에 우선하였다는 점은 여성의 자기서사에 잘 드러나 있다.

전통시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가 유교적 윤리에 입각한 당대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과 관련되는 방식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 작자가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간주하면서 지배적 가치를 적극 긍정하고 재생산하는 경우, 둘째, 작자가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간주하면서도 지배적 가치를 적극 긍정한 경우, 셋째, 작자가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간주하면서 지배적 가치에 부분적인 의문을 제기한 경우이다. 지배적 가치에 회의와 의문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한탄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유교적 가치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불행이나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여자됨'에 있다고 간주되었다. 여자로 남아있는 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남자가 되지 않고서는 만족스럽고도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현실에 체념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교적 가치의 소극적 인정에 머무르고 했다.

핵심어: 여성의 자기서사, 여성적 자아, 여성적 경험

2.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

4) 자기서사의 주요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주요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의 존재방식이 작자의 신분과 자기 삶에 대한 평가태도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보기로 한다.

조선의 여성들은 그 삶에 있어서 신분의 규정성이 매우 강하였다. 전통시대 여성 자기서사의 작가를 그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왕실여성, 양반여성, 기생이 있다. 평민여성이나 궁녀, 무녀 등 특수계층 여성이 자기서사를 남긴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조선후기 한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평민여성의 대부분은 문자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들은 주로 구술에 의해 자기서사를 행했다고 생각한다.⁴⁵⁾

왕실여성의 자기서사로는 혜경궁 홍씨(1735~1815)의 『한중록』과 인목대비(1584~1632)의 「인목대비술회문」이 대표적이다. 두 작품 모두 불행의 서사이다. 왕실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성공의 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혜경궁 홍씨와 인목대비는 세자빈으로서나 왕후나 대비로서 행복하거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조선여성은 가족 내적 존재로 간주되었고, 왕실여성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왕실이 가족공간인 동시에 정치공간이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들의 자기서사에는 가족서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서사가 개입하게 된다. 이 점이 왕실여성의 자기서사의 특징적 측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중록』의 경우를 보자.⁴⁶⁾ 『한중록』은 기존의 장르

*이 논문은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의 후속논문으로서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몇몇 특징적 측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석번호는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의 주석번호에 뒤이어 붙여져 있다. 참고로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서론

1.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자기서사'의 개념

II.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

1. 전통시대 남성의 자기서사
2. 여성의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상황
3. 자기서사의 동기 (이상 『한국여성문학연구』 제7호 게재)
4. 자기서사의 주요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
5. 자기서사와 지배가치의 관련양상
6.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험들 (이상 이번 호 게재)

다음 호에 게재될 「한국여성의 자기서사(3)」은 근대부분을 다루게 된다.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0-042-A00043)

45) 20세기에 채록된 부요(婦諭)들에서 평민여성의 자기서사의 편린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평민여성의 구술 자기서사가 「텐동어미화전기」의 경우처럼 양반여성에 의해 문자로 정착된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텐동어미화전기」에 대해서는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텐동어미화전기」(『인제논총』 8권2호, 인제대학교, 1992) 참조.

개념으로는 틀 지워지기 어려운 글이다. 통상 『한중록』의 제1편은 자전적 성격이 강하고, 제2편과 제3편은 친정아버지에 대한 정치적 해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제4편은 남편인 경모궁의 전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혜경궁 홍씨의 자기정체성은 삼종지도의 윤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고, 『한중록』의 전편에 걸쳐 혜경궁은 자신을 흥봉환의 딸, 경모궁의 아내, 정조의 어머니로 간주하고 있다. “내 불렬(不烈), 부자(不慈), 불효(不孝), 불우(不友)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 지금 구차하게 목숨을 붙이고 욕되게 살고 있으니 나같이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⁴⁶⁾ 라는 혜경궁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그녀는 자신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던 데 대한 깊은 한을 전편에 걸쳐서 거듭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중록』의 제1편만이 아니라 나머지 편들도 작자의 친정아버지나 남편에 관한 서사인 동시에 ‘자기서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혜경궁 홍씨는 친정아버지, 남편, 아들의 삶과의 연관 속에서만 자신의 삶을 이해했고, 그들(三從)을 떠나 그들과 분리된 자신만의 자아나 인생을 상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한 자아존재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한중록』은 자기서사와 가족서사, 그리고 정치적 서사가 날줄과 씨줄처럼 교직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왕실여성은 권력자의 아내나 어머니의 자격으로 일정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일반여성들과는 달리 완전히 ‘사적인 존재’ 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도 자신과 관련된 남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왕실 여성은 오히려 최상층의 지배계급이라는 존재조건으로 인해 유교적 부덕

46) 『한중록』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본고에서 참조한 것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숙, 『한중록연구』(정음사, 1987); 소재영, 『한중록』(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이우경, 『한중록에 나타난 四不의 자화상』(『이화어문논집』 제8집, 1986); 최기숙, 『자서전, 전기, 역사의 경계와 언술의 정치학』(『여성이론』 제1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47) 『한중록』(일사본), 제6편. 여기서 ‘불우’는 친정동생과 관련한 말이다.

이데올로기에 더욱 강인하게 긴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조선왕실의 강한 가부장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가부장제적 모순과 억압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음을 『한중록』은 보여주고 있다.

양반여성의 자기서사는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풍양조씨부인의 「조귀록」, 광주이씨부인의 「규한록」, 「복선화음가」, 「생조감구가」, 일군(一群)의 탄식가류 규방가사가 있다.

「복선화음가」와 「생조감구가」가 성공의 서사인데 반해, 「조귀록」과 「규한록」, 일군의 탄식가류 규방가사는 불행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수적으로 본다면 성공의 서사보다 불행의 서사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사실이 전통시대 여성의 대다수가 불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한 여성들은 자기서사의 글을 굳이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들의 삶은 주변남성들에 의해 기록 보존되곤 했다. 그리고 그녀들은 더러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여성의 삶을 계녀가류 규방가사 형식을 통해 보편적인 형태로 서술하곤 했다. 요컨대 그녀들은 사회적 규범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삶은 그런대로 성공적이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기에 굳이 자기서사의 글을 쓸 이유도 없었다고 하겠다.

성공의 서사인 「복선화음가」와 「생조감구가」는 자손에 대한 직접적인 훈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여녀 계녀가류와는 달리 자기서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규범화하려는 작자의식과 연관된 것이라 하겠다. 작자들은 자기 인생을 바람직한 삶의 규범 내지는 규범적 삶의 생생한 시례로서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기 인생이 규범에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여기며, 그를 서술함으로써 자손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복선화음가」는 조선후기 몰락양반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헌신

적인 노동과 치산행위를 통해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편의 입신양명을 도우며 자녀를 잘 교육함으로써 유교적 가부장 질서의 공고화에 기여한 여성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⁴⁸⁾

「생조감구가」는 회갑을 맞은 여성이 자신의 일생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팔남매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한 삶으로 회고하면서 아울러 일본제국주의 및 신문명을 비판하고 자손들을 향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고 있다.

「복선화음가」와 「생조감구가」의 작자들이 자기서사를 성공의 서사로서 기술하게 된 근거는 모두 기본적으로 자신이 훌륭한 아내·어머니·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녀들의 여성적 자아는 삼중지도적 여성적 자아에 더할 나위없이 충실하다. 그런만큼 그녀들의 인생도 규범적 삶에 충실하게 부합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이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들은 자신이 경제적 위기(「복선화음가」)나 사회적 위기(「생조감구가」)로 인해 유교적 여성규범의 성공적 실현이 쉽지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결국은 유교적 여성적 삶의 전범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대다수 양반여성의 자기서사는 불행의 서사이다. 「조귀록」의 작자 풍양조씨부인과 「규한록」의 작자 광주이씨부인은 양반가문의 외아들에게 시집가 젊은 나이에 청상이 되었다. 남편을 따라 자결하려 했으나 주위의 만류로 죽지 못했으며, 양반가의 며느리로서 남편도 없고 자

48) 이씨부인은 자신을 이한림의 증손녀요, 정학사의 외손녀며, 김한림의 증손부라고 서술하면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자기서사의 규방가사 중에서 신변탄식이나 한탄을 보이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씨부인이 일반적인 탄식가류 규방가사의 내용이나 정서와는 사뭇 다른 자기서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여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데서 연유한다. 이씨부인은 주로 자신의 삶에 있어 전통적인 여성규범에 부합되는 측면이나 자기생애의 성공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자기서사를 하고 있다.

식도 없는 삶을 살아야했다. 두 작자는 모두 온전한 아내되기, 어머니 되기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 자기 인생을 불행이라 규정하였다.

일군의 '탄식가류 규방가사'는 조선여성의 불행에 관한 집단적 자기서사라고 할 수 있다. 양반여성의 불행의 서사는 '탄식가류 규방가사'라는 유형을 형성할 정도로 양산되었다.⁴⁹⁾ 탄식가류 규방가사는 작자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인식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탄식가류 규방가사 중 자기서사가 현저한 작품들에서 작자가 생각하는 불행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주로 친정과의 단절, 시집살이와 가난 등 결혼생활의 어려움, 남편과의 생이별, 과부로서의 삶, 어머니 노릇의 힘겨움 등에 집중되어 있다.⁵⁰⁾ 작자들의 여성적 정체성은 '삼종지도'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들은 온전한 딸 노릇, 아내노릇, 어머니노릇을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불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자기서사에 나타난 양반여성의 자아는 성공의 서사에서든 불행의 서사에서든 삼종지도의 답론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특정남성의 딸,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자신을 이해하였고, 그러한 가족내적 역할을 여하히 수행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의 성패를 규정하고 평가했다.

기생의 자기서사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기생명선자술가」와 「군산월애원

49) 탄식가류 규방가사는 자신의 인생이나 경험을 제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작품이든 다소간의 자기서사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단편적이거나 막연하고도 일반적으로 서술하면서 자신의 감정-주로 한탄-을 토로하고 표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서술시점까지의 자신의 생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한 텍스트는 그리 많지는 않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자기서사'는 많지 않은 셈이다.

50) 탄식가류 규방가사는 그 세부적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혼인으로 인한 심리적이거나 현실적인 고통과 애환을 중심으로 자기서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점은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태학사, 1999), p.333에서 지적된 바 있다.

가」가 있다.⁵¹⁾ 「기생명선자술가」의 작자는 19세기 중반 해주 기생이었던 명선이며, 「군산월애원가」의 작자는 19세기 중반 함경도 명천 기생 군산월로 추정된다. 전자가 성공의 서사라면 후자는 불행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려서부터 기생수업을 받았고 우연히 한 양반남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명선은 곧 남자와 이별을 하였고 임신한 몸으로 절개를 지키며 그를 기다렸다. 얼마 후 명선은 아들을 낳았고 남자의 부름을 받아 첩이 되어 서울로 갔다. 명선은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간주하고 자랑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올곧은 마음과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비록 신분은 기생이지만 마음이나 행동만은 절개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군산월은 앞날에 대한 남자의 약속을 믿고 그를 섬겼으나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다. 군산월도 자신을 절개있는 여성으로 형상화하면서, 남자를 만나기 이전부터도 자신은 신분만 기생이었지 행동은 기생이 아니었다고 자부하였다. 군산월은 자신의 삶을 실패로 간주하는데, 그 원인을 남자의 배신과 그로 인한 일부종사(一夫從事)의 좌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기생은 애초 남녀유별이나 삼종지도의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존재였다. 일찍이 황진이와 경매의 경우가 보여주듯 유교적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일정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다소나마 갖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생여성들은 신분적으로 천민이었기에 오히려 평범한 일반여

51) 이외에 기생의 자기서사로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신독재수택본 소설집』에 한문으로 기록된 작자미상의 「과기탄」이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장악원에 소속된 늙은 기생이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한 뒤 관청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다. 한문으로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기생이 관청에 원정(原情)하는 글을 누군가 대필해 준 것은 아닐까 추측되지만 과연 원작자가 기생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소수록』에 수록된 '수습 명총이 회양한당호여 탄화로겹볼너라'는 글도 늙은 기생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은 드러나지 않으나 기생 자신들이 스스로의 삶과 늙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성의 삶을 더욱 선망하게 마련이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의 자기의식은 ‘한 남자의 아내되기’를 지향하는 것이거나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한 데서 비롯하는 불안정하고 소외된 것이었다. 기생의 존재조건과 그들에게 요구된 사회적 규범이 일반여성의 경우와는 현저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절개나 일부종사 같은 유교적 여성이데올로기에 간박되어 있었고 그에 근거하여 인생의 성패를 가늠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적 자아는 신분의 차이나 인생의 성패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히 유교적 윤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유교적 여성윤리를 대표하는 것은 ‘남녀유별’과 ‘삼종지도’ 및 ‘출가외인’의 이데올로기였다. 조선의 여성이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공적 사회나 국가의 일원으로 이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⁵²⁾ 조선의 여성은 자신을 인생의 각 시기에 따라 아버지, 남편, 아들에 종속된 존재로서 이해했다. 따라서 인생의 성패도 자신이 특정남성의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여부에 의해 평가하곤 했음을 알 수 있다.⁵³⁾

52) 『내훈』 「부부장」에서는 남편은 하늘이니 여성은 자기의 몸과 뜻을 낮추어 오직 순종해야 하며, 남편의 훈계를 성인의 경전처럼 듣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며 제 마음대로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는 시부모가 때려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남편이 때려도 원망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음식이나 의복을 만드는 일만을 할 뿐, 집안 일을 처리해서도 안되고 나라의 정치에 참여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53) 그런데 성인여성의 자기정체성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은 아내로서의 자기, 어머니로서의 자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딸로서 존재하는 기간은 사실상 아내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출가외인’ 이데올로기로 인해 결혼한 여성은 사실상 친정과 단절되었으며, 여성이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가 대부분이었기에 딸로서의 자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점차 약화되었다. 한편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아내 역할에 포함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내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편의 부모-시부모-에 대한 효도였다.

전통시대 여성에게는 딸, 아내(및 며느리), 어머니 외의 자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는 철저히 가족 내적 존재였다. 인생의 각 시기에 따라 딸, 아내(및 며느리), 어머니의 역할만이 인정되었기에 조선여성에게는 젠더정체성이 개별정체성보다 우선적이고 규정적이었다. 조선의 남성은 자신을 한 사람의 독특한 인간으로 이해하거나 인간일반의 특수한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여성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보다는 우선 ‘여성’으로서 이해하였다. 여성에게 개별적 특성이나 인간적 특성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 사람의 여성은 단지 여성집단의 일원이자, 여성일반의 대표나 범례로서 존재할 따름이었다. 조선사회에서 한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규범적 여성상에 부합하는가 여부였을 뿐, 여타의 다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의 여성이 삼종지도에 의해 규율되는 타자적 존재이며, 그들에게는 젠더정체성이 개별정체성에 우선하였다는 점은 여성의 자기서사에 잘 드러나 있다. 조선여성의 자기서사가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문제삼는 경우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중록』의 혜경궁 홍씨가 친정아버지와 남편과 아들과의 연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문제삼았고, 『조귀록』의 작자가 남편의 투병과 죽음을 중심으로 자기서사를 기록했으며, 탄식가류 규방가사의 대부분도 딸로서, 아내 혹은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삶을 문제삼은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조선여성의 자기서사에는 가족과 독립된 자기만의 서사란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친정부모, 남편, 아들과 연관되는 자기서사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심지어는 기생의 경우조차도 특정남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서사를 했다. 이를 통해 유교적 여성담론이 여성적 자아의 존재방식을 얼마나 강력하게 틀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5) 자기서사와 지배가치의 관련양상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는 유교적 윤리에 입각한 당대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었는가?

첫째, 작자가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간주하면서 지배적 가치를 적극 긍정하고 재생산하는 경우이다. 「복선화음가」는 유교적 가문이데올로기의 가치를, 「기생명선자술가」는 여성의 절개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고 있다. 「생조감구가」는 신문명과 신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유교적 가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둘째, 작자가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간주하면서도 지배적 가치를 적극 긍정한 경우이다. 「한중록」이나 「조기록」, 탄식가류 규방가사의 일부⁵⁴는 자신의 삶을 불행한 것 혹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원인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의 현실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작자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회한을 토로하면서도, 개인적인 불행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가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라며 그를 적극 긍정하고 있다.

셋째, 작자가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간주하면서 지배적 가치에 부분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경우이다. 탄식가류 규방가사 중에는 “어화 세상사람들이 여자의 삼중지도 누가 마련했노”, “억울한 여자유행 이 길 없이 못사는 가”, “성인의 어진 예법 나에게 원수로다”(이상 「사친가」), “옛 법이 고이하다 여필종부 무삼 일고”(「여자가라」), “불쌍하다 여자신명 부모형제 다 버리고 여필종부 업을 좇아 생면부지 남의 가문 어른 많고 법도 많다”(「부녀가」)고 하여 유교적 예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한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철천지원 무엇인고 부녀팔자 아니든가”, “복 있으면 남자되고 죄 있으면 여자되나”(이상 「부녀가」)라고 하거나 “지옥같은 이 규중”(「여자가라」)이라며 여성의 존재조건을 한탄하면서 유교적 여성규범에 부분적인 의문을 제기한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와 의문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한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유교적 가치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불행이나 고통의 원인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

54) 주로 남편과의 생이별이나 과부로서의 삶을 위주로 자기서사를 한 작품들에서 발견된다.

에 있다고 간주되었다. “전생에 무슨 죄로 여자 몸이 되어나서”(「정부인자탄가」), “전생에 무슨 죄로 여자 신이 되단말가”(「여자소회가라」), “경청(輕淸)하온 하늘 도(道)로 남자 몸이 못되어서 중탁(重濁)하온 땅 정기로 전생 차생 무슨 죄로”(「여자자탄서」), “어찌타가 우리들은 남자명분 못 태어나고 여자 몸이 되었난고”(「부녀가」), “자다가 꿈에나마 남자 한 번 되어보면, 죽었다 다시 깨서 남자 한번 되어보면”(「여자가라」), “이 몸이 남아되어 차생(此生) 설원(雪冤)하오리다”(「리씨회심곡」) 등의 구절에서 드러나듯 여자로 남아있는 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남자가 되지 않고서는 만족스럽고도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여성적 현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체념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교적 가치의 소극적 인정에 머무르곤 했다. 조선여성에게는 대안적 가치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⁵⁵⁾

6) 자기서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험들

어린 시절과 가정교육 전통시대 남성과 여성의 어린 시절은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아동기와는 상당히 달랐다. 유교적 성인식인 ‘관례(冠禮)’는 대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해졌는데, 관습적으로는 혼례 한 달 전쯤에서부터 혼례 직전 사이에 행해졌다.⁵⁶⁾ 관례가 혼례를 앞두고 행해진 데서 알 수 있듯, 전통사회에서는 혼례를 치르면 ‘어른’으로 인정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로 간주되었다.

전통시대 여성의 어린 시절은 결혼 이전의 시기였고 친정에서 생활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조선의 남성은 결혼 전이든 후든 아내가 생긴 것 외에는 대체로 동일한 가족관계를 유지했다. 오히려 결혼을 하면 가족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 ‘어른’으로 대접받게 되어 그 실제적 지위가 상승되었다. 그러

55) 이상은 작자 스스로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 것이다. 그러나 문학텍스트에는 종종 작자 작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가치가 현현되는 틈새와 균열이 존재한다.

56)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나 조선의 여성은 결혼을 통해 성인이 되긴했으나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와 공동체적 질서 속에 혈혈단신으로 편입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어린 시절’은 ‘친정에 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되는 반면, 어른으로서의 삶은 시집살이나 슬픔, 불행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⁷⁾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대부분은 작자가 결혼 후에 겪었던 불행한 경험을 서술한 경우가 많았던바, 결혼생활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시절은 부모의 슬하에서 지낸 행복했던 시절로 서술되곤 한다.⁵⁸⁾ “살뜰이 귀한 자에 추우면 병들세라 병들면 죽을세라 만지면 꺼질세라 불면 나를세라”(『창회곡』), “아들 딸 분간없이 주옥같이 사랑하여”, “척푼 척리 모아내어 철피의 북 곱게 지어 몸간수도 정히 하고”(이상 「정부인자탄가」), “사오세 육칠세를 부모 앞에 구살대고”(『여자자탄가』), “삼사오세 놀이함은 방득깨비⁵⁹⁾ 세간살림 풀 뜯어서 각시하기 이것을 일을 삼아”(『봉우소회가』) 등의 서술에서처럼 많은 작품에서 여성들은 어린 시절 친정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서술하고 있다. 전통시대 남성이 자기서사에서 어린 시절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며, 혹 다른 경우에도 학업의 성취를 주로 서술한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전통시대 어린 여성들에게는 공적인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일반여성의 교육은 가정교육이 유일한 것이었다. 가정교육의 목적은 부덕(婦德)의 함양과 여공(女工)의 습득에 있었던바, 장차 결혼 후에 담당하게 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다. 가정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였으며 아버지도 부분적으로 관여하였다. 부덕의 함양은 주로 일상적인 부모의 훈계와 여성윤리서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목대비는 부모가 항시 “어려서는 저 옛날의 조아(曹娥)와 황향(黃香)의 효

57) 친정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다.

58) 이러한 사실은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pp.331~345에 지적되어 있다.

59) 경상도 방언으로 ‘소꿉놀이’를 의미함.

도를 본받으며, 여자의 할 일을 부지런히 배우고, 제사 때는 음식차리기를 도우며, 자라서는 남의 집에 시집가서 부녀의 도리를 삼가하여 시부모를 봉양하며, 구족(九族)을 화복케 하고, 남편을 온순히 섬기며, 하인과 집안을 화평하게 다스려, 칠거(七去)의 허물이 없도록 사는 것이 또한 효도의 길이라는 가르침을 배웠다고 회고하였으며, 『한중록』과 『조고록』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규방가사들도 간략하지만 부모의 교훈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혼례나 신행을 앞둔 딸에게 어머니는 “가장은 하늘이라 하늘이 하신 말을 거역말고 설워마라”라고 하든가 “시댁이 네 집이라 친정을 아주 잊고 시댁만 생각하라”(『정부인자탄가』), “어머님 하신 말씀 여자로 생겨나면 친가부모 저버리고 여필종부 법이로다”(『상사몽』) 등의 말로 ‘여필종부’와 ‘출가의인’을 누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개 한글을 익히고 기본적인 여성윤리서를 읽기도 했다. 혜경궁 홍씨는 세자빈으로 간택된 이후에 대왕으로부터 『소학』과 『훈서(訓書)』⁶⁰⁾를 하사받아 공부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규방가사 중에는 6,7세에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직접 배웠다거나(『정부인자탄가』), 어머니가 한글을 익혀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어(『청상가』) 대개 딸들은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낮에는 어머니의 시중을 들거나 바느질을 했고 밤에는 한글책을 읽었다는 기록도 있다(『상사몽』). 친정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다. 더러 『내칙』과 『내훈』을 읽었다는 경우가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대개 혼례를 앞두고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베껴쓰면서 유교적 여성윤리를 학습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공의 습득은 대개 빠르면 6,7세 보통은 10세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길쌈, 방적, 바느질, 음식만들기 등 일상의 의생활, 주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60) 효순왕후(孝純王后, 1715~1751 ; 영조 3년 효장세자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음) 입궐 후의 어제서(御製書)라고 하였다.

었다. “여공에 매인 일은 모두 다 배워두면 유조(有助)하니 언문 글은 여가 봐서 익혀두라”(「청상가」) 한 데서 드러나듯 글배우기보다는 여공습득이 더 중요시되었다.

자기서사의 작자들은 대개 친정부모의 **교훈**을 다정하고 자상한 것으로서 기억하고 있다.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경우나, 혹은 자신의 불행한 삶에 대한 회한을 토로하는 경우 부모와 관련된 기억은 더욱 또렷이 부각되곤 한다. 자기 부모의 가르침을 탓거나 의문시하는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20세기 전반에 이르면 구여성들은 더러 자신이 신식교육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식골씨서 서른 타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작자는 서울 유학생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불경이부’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도 남들처럼 학교공부를 하였다면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기생여성의 **교육**은 일반 여성의 경우와 사뭇 달랐다. 기생교육의 대강은 「기생명선자술가」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명선은 말을 배울 무렵부터 노래를 배웠고, 걸음마를 할 무렵부터 춤추기를 배웠으며 7,8세 무렵부터 동기(童妓) 노릇을 하며 본격적인 기생수업을 하였다. 그러나 작자는 자신이 반가여성이나 평민여성들처럼 여공을 닦지 못한 사실을 한스러워하며 기생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전통시대 여성들의 어린 시절은 혼례와 함께 끝이 났다. 여필종부와 출가 외인의 여성규범 때문에 혼인과 더불어 여성은 ‘효’의 대상을 친정부모에서 시부모로 바꾸어야 했다. 시부모에 대한 효는 친정부모에 대한 효와 양립할 수 없었다. 불합리하게도 여성의 ‘효’에만 이중기준이 적용되었으며, 한 번 시집가면 죽어서도 시집귀신이 되어야 했고, 결혼 초가 아니면 근친가는 것도 어려웠던 조선후기 여성들은 대개 친정부모와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다. 결혼생활이 불행할수록 여성들은 친정에서의 어린 시절을 행복했던 시절로 추억했으며 그에 대한 강한 향수를 피력하곤 했다.

결혼생활이 불행했던 여성들에게 있어 어린 시절은 종종 아득한 과거의 낙원인 셈이었다.

혼례과 결혼생활 전통시대 여성의 혼인시기는 10대 중반 늦어도 10대 후반으로서 오늘날과 비교하면 무척 빨랐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양반여성으로서 혼인을 통해 왕실의 일원이 된 여성들의 결혼시기는 훨씬 더 빨랐다. 혜경궁 홍씨는 아홉 살에 세자빈으로 간택되고 이듬해 혼례를 치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혼례의 진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규방가사에 의하면 중매가 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처가 정해지고, 여성은 부모나 가족들에 의해 정해진 혼례절차를 따라야 했다. 혼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여성들의 태도는 혼례를 긍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경우, 중매가 들어오고 사성(四星)이 오가자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뻐다고 술화하였으며(「청상가」, 「상사몽」), “역대 성현 지은 예절 가늠하고 아름답다”(「청상가」)라고 하며 중세적 성별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남편과 금슬이 좋았고 결혼생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방가사는 혼인에 대해 자기 입장을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친정 부모형제에게 남다른 애착이 있는 경우나 혹은 친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여성작자의 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곤 한다. 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교적 예법에 대한 원망이나 여자로 태어난 데 대한 한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여자로서의 운명이나 ‘여자유행’의 예법에 순응하는 자세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기생의 경우는 비록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남성과의 연애가 가능했다. 하지만 남성은 기약도 없이 떠나는 것이 다반사였고 기다리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남겨졌다.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고, 상대남성이 양반인 경우 결혼을 하더라도 기생은 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생여성을 정

식 첩으로 맞이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적으로 남성 쪽의 결정사항이었고, 여성은 상대남성의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생명선자술가」와 「군산월에원가」에서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전통시대 여성의 결혼생활의 초기와 중기, 후기는 그 양상이 달랐다. 결혼 초기는 친정과의 단절, 새로운 인간관계와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가혹한 시집살이, 막중한 가사노동의 부담 등으로 고통을 겪는 때였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중시되는 시기였다. 결혼 중기는 시집 가문의 일원으로서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였고,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역할이 중시되는 시기였다. 결혼 후기는 자신이 또 한 사람의 시어머니가 됨으로써 집안의 안주인이 되며, 가족 내에서 상당정도의 권위와 권력을 갖게 되는 시기였다.

자기서사가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씌어졌는가에 따라서 결혼생활에 대한 묘사도 다분히 달라졌다. 결혼초기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고통스런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친정에 대한 그리움, 친정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슬픔, 시부모나 동서의 혹독한 시집살이, 갖가지 가사노동의 괴로움, 남편과의 생이별, 남편과의 사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작자들이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박복한 탓이거나 혹은 여성으로 태어난 죄라고 여길 따름이었다. 따라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경우도 거의 없다. 그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도 없이 그저 한탄하고 체념하며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중기 이후의 여성들도 남편의 부재나 가난 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자녀들을 기르고 성례시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 혹은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결혼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심리적 고통도 다소 완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 중기 이후나 결혼후기에 씌어진 자기서사는 자기연민(「리씨회심곡」, 「창회곡」, 「소회가」)을 토로한 경우와 강한 자부심과 자기긍정(「복선화음가」, 「생조감구가」)을 표현한 경우로 나

누어진다. 전자는 자기인생에 어떤 결락이 있었던 경우인 반면, 후자는 자기인생을 그런대로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어떤 경우든 결혼 자체에 대한 부정은 가능하지 않았고, 결혼생활 전체를 행복한 것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없었다. 자기서사의 작자들은 결혼생활을 고통스럽거나 힘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는 대부분 혼인으로 인한 애환과 고통을 서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전통시대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이었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인생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 노릇의 재생산 여성에게 있어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가?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어머니는 자녀양육을 도맡아 아들과 딸의 성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린 여성들은 어머니의 일상적 역할수행과 직접적인 교훈을 매개로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여성적 삶의 전범으로 인식하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의 어머니 일반은 자신의 딸에 대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전달자가 된다. 남성의 자기서사에서 부모는 이름과 가문 등 간단한 신원만이 서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친정어머니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시대 여성에게 있어 어머니는 부덕과 여공을 가르쳐 준 스승이며 인생의 전범이었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자기인생과의 강한 동질감을 느끼며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죽기록』),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에 안타까와하거나 자신의 불효를 한탄하는 경우도 있다(『한중록』, 『정부인 자탄가』, 『봉우사모가』, 『사친가』, 『여자유행가』, 『리씨회심곡』 등). 규방가사에는 자신을 시집보내고 홀로 슬퍼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거나, 어머니와의 공간적 단절을 괴로워하는 내용이 매우 흔히 등장하곤 한다. 전통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어머니와 딸의 심리적 유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나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 회의와 의문을 제기한 경우는 전무하다.

어머니를 통해 여성적 역할을 학습하고 성별정체성을 확립한 여성들은 스스로 또 하나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조선의 유교적 규범이 여성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낳기’였다.⁶¹⁾ 아들을 낳는 것은 남편과 시부모와 가문에 대한 여성의 가장 큰 의무였다. 딸은 낳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온전한 어머니 되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주괴록』의 작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 친정어머니에게 크나큰 연민을 표시하고 있는 데서나, 「창회곡」의 작자가 잇달아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해 애간장이 타고 피와 살이 마르는 듯 했다고 한 데서⁶²⁾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어머니’가 되지 못한 여성의 고통은 그만큼 큰 것이었다.

반면 ‘어머니 되기’는 여성의 보람이자 권한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조선의 여성은 어머니 노릇을 완수함으로써 비로소 일정한 가족내적 권위를 지닐 수 있었다. 여성이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일정한 권력을 누리는 것은 오직 어머니 되기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규한록」의 이씨부인이 시어른들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양자를 택하는 것은 가문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동기와 연관된 것이었다. 그리고 『한중록』의 혜경궁 홍씨는 아들과 손자가 왕위에 오른 뒤에서야 자신의 한을 토로하고 과거의 시비를 교정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기생명선자술가」에서 기약도 없이 떠난 남자로부터 기별이 온 것은 작자가 아들을 낳은 이후였다.

젊은 나이에 아들도 없이 청상과부가 된 여성들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주괴록』이나 「규한록」의 작자들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는 한편, 아들이 없어 자신의 미래 또한 기대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하였다.

61) 『예기』 「혼의」에서 “혼례는 위로는 종묘의 제사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말은 「내혼」에 다시 인용되었다.

62) “불긴타 녀싱 사녀 이거시 원일인고 삼십이 넘어서니 시각으로 투난 위장 혈늬이 마르느 줌”(「창회곡」)

집안이 가난하거나 남편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 어머니 노릇의 힘겨움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고(「소회가」, 「여자탄식가」, 「창회곡」), 중도에 자녀를 잃고 고통 겪는 일도 많았으며(「창회곡」, 「여자탄식가」),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상대를 잘 택하고 혼사를 예법에 맞게 치뤄내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었다(「소회가」, 「생조감구가」). 출가시킨 딸이 불행을 겪으면 마치 자신의 탓인양 괴로워하기도 했다(「창회곡」, 「소회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노릇은 자녀들을 성례시킴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어머니 노릇이 중요하고 힘든 것만큼 그것을 온전히 완수했을 때의 보람과 자부는 큰 것이었다. 어머니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복선화음가」는 아들 형제가 진사 급제하고 딸은 성대한 혼례를 치르게 된 데 대한 어머니로서의 자부를 표현하고 있다. 「생조감구가」의 작자도 사남사녀, 며느리와 사위, 손자, 손녀, 손서가 모인 자신의 회갑잔치에서 크나큰 삶의 기쁨을 느낀다. 회갑잔치의 광경과 기쁨을 작자는 매우 길고도 자세하게 서술하는 한편⁶³⁾,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람과 자부를 피력하였다.

결혼의 실패 조선 여성의 인생에서 결혼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일부 기생여성을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란 있을 수 없었고 결혼생활의 실패는 바로 인생의 실패였다. 결혼의 실패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거나 혹은 남편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초래되었다. '삼중지도'가 절대적인 여성적 윤리로 간주되었고, 삼중 중에서도 사실상 남편이 가장 중요했던 까닭에 여성의 결혼과 인생에서 남편의 존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중록」, 「조귀록」, 「규한록」, 그리고 탄식가류 규방가사 중에서 과부로서 삶의 초점을 맞춘 자기서사의 작가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청상과부가 된 사실을 인생의 실패로 간주하고 있

63) 그것은 작품 전체에서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다. 한결같이 남편의 죽음 직후 자결을 시도했으며, 이후의 삶을 한낱 ‘투쟁’으로 인식하였다. 혹 어린 아들이 있거나(「한중록」, 「상사몽」), 양자를 맞이하기도 했지만(「규한록」, 「리씨회심곡」)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실패를 온전히 만회할 수는 없었다.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들이 남긴 자기서사를 보면 여성이 철저히 가족내적 존재로만 규정되는 사회에서 남편의 죽음은 여성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⁴⁾ 과부가 작자인 자기서사의 작품들은 비교적 결혼 초기에 남편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는 것이 더욱 불행하고 고통스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도 전통시대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탄식가류 규방가사 중에서 남편과의 생이별을 위주로 한 자기서사 작품들에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의 여성에게 결혼은 단 한 번만 가능한 것이었고, 여성 스스로가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에 버림받은 여성에게 가능한 것은 끝없는 기다림 외에는 없었다.

남편과의 생이별은 조선시대보다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흔히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생이별의 이유는 남편이 국외로 망명한 경우, 남편이 서울로 유학한 경우, 혹은 여성 자신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과 여성의 근대적 세계로의 진입이 시차를 두고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된 데 연유한다.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다수 남성들은 앞질러 근대적 상황과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고, 도시나 외국으로의 공간이동의 기회가 증가된 데 반해, 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중세적 상황과 가치를 강요받으며 공동체적인 닫힌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남편과의 생이별

64) 이러한 사실은 남편을 따라 자결하면서 남긴 남원윤씨부인(? ~1741)의 「명도자탄사(命道自歎辭)」와 전의이씨부인(1723~1748)의 「절명사(絶命詞)」에도 잘 드러나 있는 바다. 「명도자탄사」는 이상보 교수에 의해 『문학사상』 42호(1976)에 소개되었다. 「절명사」는 홍재휴, 「『전의이씨유문』 고」(『국어교육논지』 1, 대구교육대학, 1973)에 소개되었다. 이 두 작품은 감정의 토로를 위주로 하였으며, 자기서사적 요소는 약하다.

을 위주로 한 자기서사들은 20세기 전반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작자들은 남편이 없는 결혼생활을 불행으로 인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끝없는 기다림 외에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필자 : 인하대

시카고대

서울대 교수

Abstract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2)

Park, Hyesook
Choi, Kyeong-hee
Park, Hee-byoung

This paper studied the traditional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 This is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which is aimed at examining the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women's identities and various aspects of self-narratives by them from traditional period to modern.

This paper, in particular, studied the representations of traditional feminine "I" in the prominent works were how different each other by their social classes and their estimation of their lives. Women writers of self-narratives in traditional period, they were royal women or Yangban or Kisaeng and each estimated one's life differently, but they were commonly the Other regulated by Sam-jong-ji-do, and gender identity was prior to individual identity for them.

Then studied the relations of self-narratives by Korean women with Confucian values or ideology in traditional period, and traditional feminine experiences represented in women's self-narratives.